

건설동향브리핑

CERIK

제964호
2024. 7. 5.

- 해외건설시장 주요 이슈와 하반기 전망 및 전략
- 건설업 5월 취업자 수, 전년 동월 대비 2.2% 감소

한국건설산업연구원

Construction &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

해외건설시장 주요 이슈와 하반기 전망 및 전략

- 해외건설시장 진출 역사 60년,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 기대 -

■ 해외건설 수주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% 증가한 136.3억 달러 기록(5.30. 기준)

- 해외건설 수주는 4월에만 76.9억 달러를 수주하며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(1~4월 합계)을 기록했지만, 5월에는 4.2억 달러에 그치며 증가세가 둔화함.
 - 지역별로는 중동에서 20건의 사업 수주를 통해 99.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주의 73.2%를 차지함. 특히, 지난해 같은 기간까지 3.8억 달러에 그쳤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81.5억 달러로 대폭 증가함.
 - 반면, 지난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수주 실적을 달성했던 북미·태평양 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% 감소한 15.2억 달러에 그침. 지난해 실적 대부분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따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수주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.
 - 공종별로는 플랜트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324% 증가한 84.8억 달러로 주력 상품으로의 위치를 공고히 함. 하지만, 토목과 건축은 각각 2.8억 달러, 23.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6%와 23% 감소함.
 - 전체 수주 중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규모는 8.2억 달러로 6%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, 원청단독과 원청합작 사업 수주 규모는 각각 99억 달러와 35.2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98.5%를 차지함.

<그림 1> 해외건설 수주 추이(5월 30일 기준, 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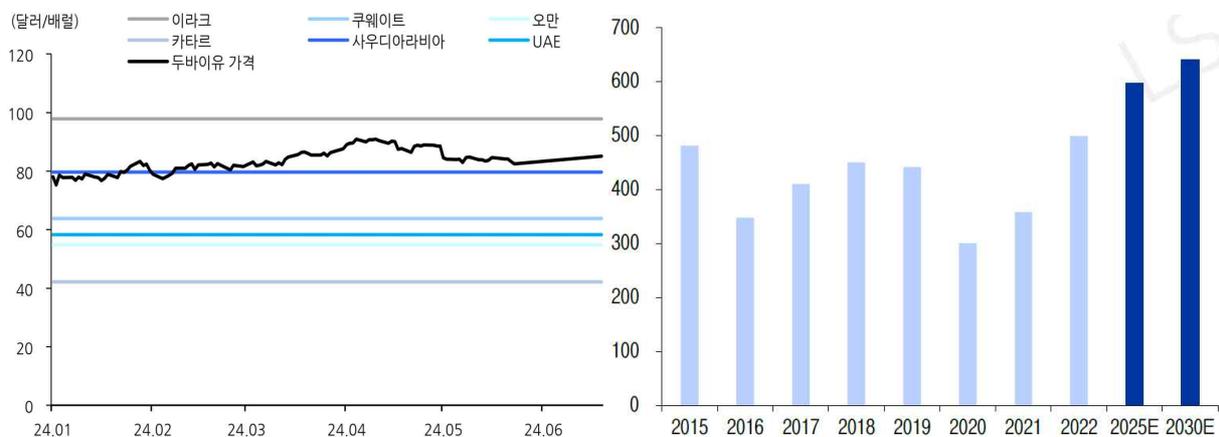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

■ 견고한 국제유가 바탕으로 발주시장 환경 일부 개선됐으나, 지정학 불안 등 잠재 위험요인 산재

- IMF, 지난 4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상품 시장의 공급 충격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석유 등의 에너지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.
- OPEC+의 220만 배럴에 이르는 감산과 전쟁 및 분쟁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안정적 추세를 기록 중임. 2023년 9월 평균 95달러였던 유가는 2024년 2월까지 평균 80.7달러를 기록함.
 -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5~80달러 수준이 지속되면서 중동 주요 산유국의 재정균형유가를 상회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우호적인 발주 환경이 조성된 상황임.
 - Rystad Energy는 Oil&Gas 업스트림 시장이 2020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6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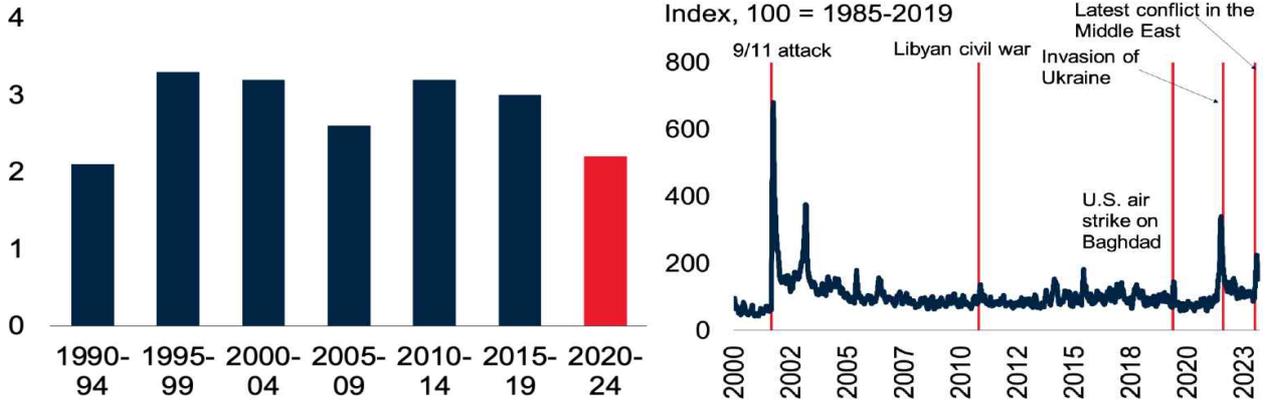
<그림 2> 중동 주요국의 '24년 재정균형유가(좌)와 세계 오일가스 업스트림 CAPEX 전망(우, 십억 달러)



자료 : 대신증권, LS증권

- 인플레이션 장기화 속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경기침체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확대되고 있으나, 확장 속도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임.
-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0~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경기침체 기준이 되는 2.5%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난 1990~1994년 이후 가장 낮음.
 - 또한, 지정학 불안에 따른 공급망 훼손과 인플레이션 장기화, 미·중 무역분쟁에 따른 규제 강화,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가능성, 중국경제 둔화에 원자재 수요 위축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.

<그림 3> 5년 단위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(% ,좌)와 글로벌 리스크 인덱스(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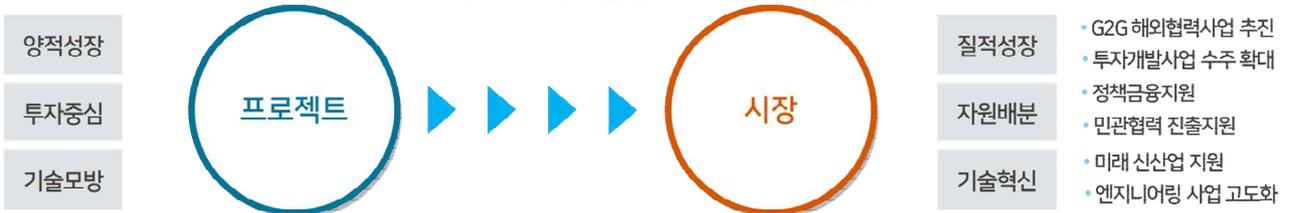


자료: 세계은행, Brookings

■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주전략의 전환 필요

- 2024년은 해외건설 시장에 첫 진출을 한 이후 60년이 되는 해로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임.
 - 다만, 양호한 국제유가에 따른 우호적인 발주시장 환경 조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은 약화된 상황임. 또한, 주요 산유국이 재정 수입 확대를 통해 정유 및 석유화학 분야 외에 투자 분야를 다각화함에 따라 유가와 플랜트 시장 간의 상관관계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추세임.
 -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약 2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주가 필요한 상황임. 최근 원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 수주 가능성, 수주 예정 사업이 존재하는 만큼 긍정적인 기대는 유효한 상황임.
-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의 역량 집결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수주에서 시장 수주가 가능한 전략 체계의 전환이 필요함.
 - 양적 성장, 투자중심, 기술모방의 사업단위 수주에서 국가 보유 역량의 전략적 배분과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이 가능한 시장 수주 기반으로 전략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시점임.

<그림 4> 해외건설 수주 전략의 전환



손태홍(건설기술·관리연구실장 · thsohn@cerik.re.kr)

건설업 5월 취업자 수, 전년 동월 대비 2.2% 감소

- 5월에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, 향후 물량 감소 예상 -

올 5월 건설업 취업자 수 207만명... 전년 동월 대비 2.2%, 전월 대비 1.3% 감소

- 통계청 고용동향에 의하면 2024년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2% 감소한 207.0만명으로 10개월 만에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(<그림 1, 2> 참조).
 -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에 211.7만명을 기록한 이후 4월에 209.8만명, 그리고 5월에 207.0만명으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.
 -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3.6% → 1.8% → 1.1% → 0.3%를 기록하면서 점차 둔화되었으며, 5월에 2.2% 줄어 지난 2023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감소함.

건설업 취업자 수 5월에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, 향후 물량 감소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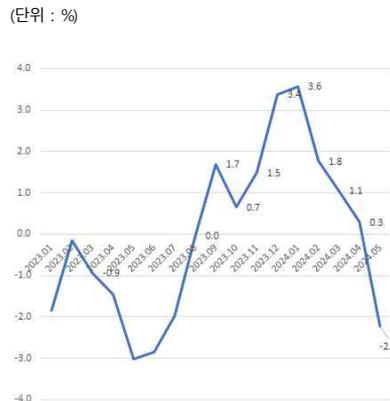
- 5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.3% 감소(<그림 3> 참조)하였는데, 5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이후 15년 만임.¹⁾
 - 건설공사는 연초에 감소한 이후에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는 계절성을 가지는데, 5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월보다 감소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음. 결국, 건축 마감공사 물량이 위축됨과 동시에 향후 공사 물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.

<그림 1>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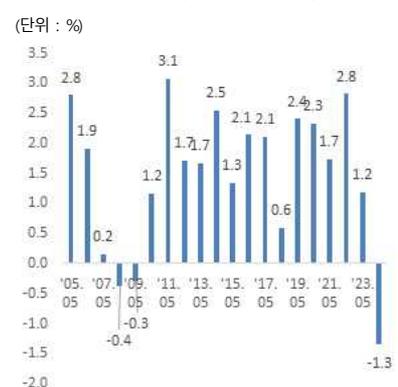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

<그림 2>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



<그림 3> 연도별 5월 전월 대비 증감률 비교



1) 통계청의 산업별 취업자 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(2017년) 기준에 의해 2013년부터 월간 자료를 제공하는데 과거 기준(9차개정(2004~2012년))까지 자료를 연장해 살펴본 결과, 2024년 이전 5월에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월 보다 감소한 시기는 2008년과 2009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던 시기와 일치함.

5월 건설업 고용자보험 가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1.0% 감소 9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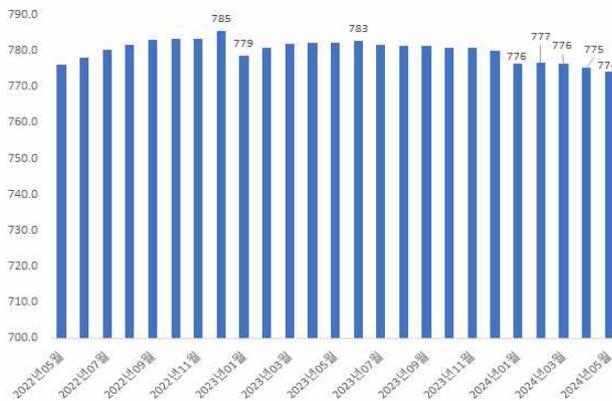
-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를 살핀 결과, 건설업 고용자보험 가입자 수는 5월에 77.4만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.0% 감소, 지난 2023년 9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(<그림 2, 3> 참조)²⁾.
 -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77.7만명을 기록한 이후 3, 4월에 각각 77.6만 명, 77.5만 명, 5월에는 77.4만 명을 기록해 2월 이후 매달 0.1만 명씩 감소함.
 -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살핀 결과, 지난 2023년 9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, 2013년 8월~2015년 1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감소세를 지속함.

건설 고용보험 가입자와 취업자 수 동시 감소, 산업적으로 침체 본격화 신호

- 과거 건설업 취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동시에 감소한 시점을 고려할 경우, 산업적으로 침체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됨.
 -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는 상시근로자 감소의 영향이 크고, 취업자 수 감소는 마감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투입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.
 - 건설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함께 감소한 기간을 살핀 결과 2009년 5~6월, 2013년 2~5월, 같은 해 8월, 10월과 11월임.
 - 2009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영향으로 향후 공사 물량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시기이며, 2013년은 오랜 기간 침체로 인해 산업 내 구조조정 영향이 컸던 시기임.

<그림 4>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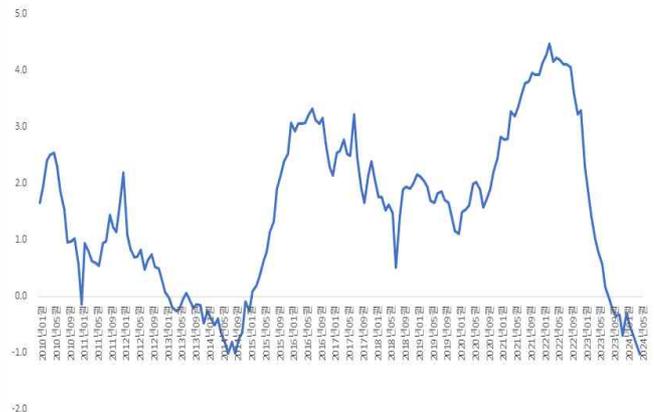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명)



자료 : 고용부, 한국고용정보원

<그림 5>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

(단위 : %)



박철한(연구위원 · igata99@cerik.re.kr)

2) 취업자는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사람을 뜻함. 고용자는 누군가에 고용되는 임금근로자로,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주에 15시간 이상,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.